

중화·동남아 관광시장 공략 나선다

전주시, 관광객 유치 위해 현지 여행사 관계자 초청 전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위한 팸투어 운영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중화·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 공략에 나서며 등 새로운 미래 경제활성화 전략을 비치고 있다.

정명의 관광정책과장은 그 일환으로 '전주한옥마을, 남부시장야시장,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수목원' 등을 연계한 전주시 관광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화·동남아 관광객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전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 운영을 마쳤다.

시는 팸투어 일정으로 전주에서 숙박을 하고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 주변 시군과 연계한 상품개발에 착수 했다.

앞서 시는 전주에서 2022년 중화권에 웹툰을 제작해 중국 SNS플랫폼인 웨이보와 틱톡에 게재했다.

이번 전주시 팸투어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의 현지 여행사 관계자 5명과 중화·동남아 관광객 유치 실적에 우수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



전주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화·동남아 관광객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전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 운영을 마쳤다.

이번에 참가한 여행사는 싱가포르의 '나타스 홀리데이'와 말레이시아의 '마타페이' 등 각 나라별 대형 관광박람회 참가해 전주 방문 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숙박관광객 5명 이상 유치할 경우 숙박비와 문화체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명의 과장은 "2023년도 새해를 맞아 전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관광객유치와 더불어 도시 마케팅에 온 힘을 펼쳐 관광산업의 희망으로서 전주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사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전주의 매력에 빠지도록 팸투어 참여 여행사에 차별화된 관광자원 및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매력적인 전주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팸투어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사 관계자 2명이 초청됐다.

총 4일 일정으로 진행된 팸투어에서 참석자들은 '전주비빔밥 체험, 한복 입고 경기전 관람하기, 가막, 막걸리,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간관광콘텐츠 체험 '모주 만들기 체험, 전통 소리 체험' 등 전주와 인근 연계 시·군

관광자원을 답사했다.

특히 팸투어 참여 여행사 관계자들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와 인근 시·군을 연계할 경우 체류형 상품 개발에 유리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합하다"며 2023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의지를 보였다.

시민 위로·마음건강 돌본다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는 오는 2월에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돌보는 상담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4주 동안 다도치유, 통합예술치유, 미술치유, 컬러치유(주·야간), 아로마치유, 수목치유(야간), 향기치유, 집단 상담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전문 심리상담사와 함께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기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성격유형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원예 치유프로그램은 덕진보건소와 금상보건진료소, 평화동·중화산2동·삼천1동 주민센터와 치유농장 '힐링팜',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에서 각각 진행될 예

정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마음치유 개인상담은 전문 심리상담사와 일대일 대면으로 초기상담, 에니어그램, MBTI, 성격유형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결과를 종합해 개인별 맞춤형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2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프로그램 진행 일지와 시간을 확인 후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신청하면 된다.

마음치유센터 관계자는 "전주시민을 위한 일대일 대면 마음치유 상담이 올해 시작됐다"며 "마음치유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공공시설 유희부지, 정원 분야 청년 실습공간으로

정원관련학과 재학생·졸업생 대상 실습공간 정원 조성 예정

앞으로 전주시에 정원분야의 꿈을 간직한 전주시·전국 청년들 중 정원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대상으로 실습공간 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립청에서 마련한 '2023년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대상지로 지난 12월 29일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서 전주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답사 통해 최종 선

정했으며, 1개소당 최대 400㎡를 조성하는데 '역사박물관 앞 부지 2개소, 전주월드컵 경기장 안 부지 3개소' 등 공공시설 내 유희부지에 총 5개의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심 속 소규모 유희부지를 정원 분야 사회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취·창업자의 실력 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신립청으



공원 조성 부지로부터 총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

원받

1개소당 7000만 원을 투입해 정원 조성 실습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팀은 지정된 사업수행 기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정원 디자이너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원을 조성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정원분야 전공자 등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정원 조성 기회를 제공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실습지원 조성을 통해 정원 문화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명절 맞이 공한지 주차장 일제정비

전주시 완산구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쾌적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완산구 일일 주택가에 조성된 공한지주차장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9일부터 2주동안 실시되는 공한지주차장 일제정비는 '불법쓰레기 정비, 무단 방치 차량 단속 및 훼손된 공한지주차장 시설 상태 조사'를 통해 새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간 완산구는 관내 공한지 무료주차장 32개소를 조성해 600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은 "설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내길 바라고 전주에 대해 좋은 이미지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는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협약기간 동안 토지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6.4% 할인

전주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6.4%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ARS(1588-2311)나 각 구청 세무과 방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아영 기자

덕진소방서, 지난해 119 출동 건수 2만8001건

전주덕진소방서 지난해 2022 현장 출동 건수는 2만8,001건으로 하루 평균 76.7건, 18.7분마다 현장 출동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3.6%(21년 출동 건수 24,642건) 가량 증가한 추이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2년도 현장 화재 출동은 150건, 구조출동 6,789건, 구급출동 1만 8,900건, 생활안전 출동 2,162건 등 28,001건 등으로 확인이 됐다.

반면, 화재 출동과 달리 구조출동과 구급 출동 건수 각각 21년 대비 17.6%와 14.4%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관련 이송은 1,802건(확진자 1,746, 의심 환자 56건)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는 2023년에도 더 안전한 덕진구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본격적인 겨울철 사용빈도가 높은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에 대해 전주완산소방서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6일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61건으로, 2명의 인명피해(부상)가 발생했으며 약 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으로는 총 161건 중 부주의가 128건(7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가 18건(11.1%), 실화가 11건(6.8%), 전기가 4건(2.4%)으로 각각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산간 등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화재 시 인근 산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높고, 온도 조절장치가 없어 보일러 주변 가연물질에 쉽게 불이 옮겨 붙어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에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하기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기 △3개월에 한번 연통 청소하기 △연료를 한꺼번에 넣지 않기 △씻은 나무 사용 시 투입구 안을 3~4일에 1번씩 청소하기 등이다. /김영태 기자

